

2023년 11월 05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가정예배순서 ♥

◎ 예배선언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합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묵상기도(인도자는 시편 103편 22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와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찬 송 / 69(통33)장 온 천하 만물 우러러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성경봉독 / 욥기 38장 1~21절(구약p.798)

1. 그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3.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4.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5.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6.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잇들을 누가 놓았느냐
7. 그 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8.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9. 그 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10.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11.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12.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13.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 버린 일이 있었느냐
- 14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 같이 나타나되
15.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16.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17.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18.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19.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나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나
20.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21. 네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 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햇수가 많음이니라

◎ 말씀선포 /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지구는 우주에서 볼 때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구의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물이 존재한다는 것은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덴동산에도 비손, 기혼, 히대겔, 유프라데의 4개의 강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고대 문명은 이렇게 물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또 바다를 두고 있는 곳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과 바다를 잘 다스리고 사용하는 민족이 부강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물과 바다를 다스리고 이용하는 것에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부터 물과 바다는 많은 생명을 앗아 간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육지의 물인 강이나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일 년 농사를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고, 드넓은 바다는 오늘날도 완전하게 정복하지 못한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민족이나 나라에 바다를 다스리는 신에 대한 전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바다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하늘의 물과 땅의 물, 그리고 바다까지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물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에 그의 자녀 된 성도는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무한하고 전지전능한 은혜와 능력을 믿음으로 평안과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 인생의 두려움의 대상인 바다의 한계를 정하신 분이십니다.

- 고난 당하는 욥에게 그토록 애타게 찾던 하나님의 음성(voice)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에게 창조주의 권능으로 바다를 만드시고, 그 바다에 질서를 세우셨음을 말씀하십니다. 또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문빛장을 지르고, 파도가 넘어올 수 없는 선을 정하셨으며, 그곳에서 그치도록 명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8~11절입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 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빛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만일 바다와 육지에 경계가 없어서 바다가 육지를 마음대로 침범하면 육지에는 생명이 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식물이 육지에서 생명을 유지하도록 바다의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 바닷물이 물러올지 모른다는 염려나 불안 없이 육지에서 안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다의 한계가 자연법칙에 의해 자동으로 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자연법칙을 정하신 분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친히 창조한 이 모든 피조 세계가 그 권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땅과 하늘과 바다에 모든 생명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간섭과 크신 은혜가 아니면 모든 생물이 그 어느 곳에서도 존재할 수조차 없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 해를 끼치는 많은 영과 육의 악한 일들에 한계를 정하사 택한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살아가는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느끼고, 발견하며, 생명을 주시고, 보존하시며 늘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2. 인간이 정복하지 못한 바다의 주인이십니다.

- 본문 12~15절입니다.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 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 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욥은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 시대의 사람이었기에 사실 이후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후의 사람들이 욥기를 읽고 또한 모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믿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바다의 주관자라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광야로 나아가던 중에 경험한 홍해를 건넌 사건에서 분명히 증명됩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 길을 내시며, 이스라엘 백성으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일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잘 보여 줍니다. 또한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신 일은 하나님이 바다를 심판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음을 보여 줍니다. 신약으로 넘어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 사역, 즉 병든 자를 고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죄 가운데 있는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일들 속에서 바다 위를 걸으시며(요6:19) 제자들을 괴롭게 하는 풍랑이 이는 바다를 꾸짖으시어 잠잠하게 하심으로 실망과 고난과 괴로움에 있던 제자들에게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친히 증명하셨습니다

(막4:41). 이같이 하나님께서 바다를 다스리심은 하나님이 바다의 주인이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증거입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을 부르시며 참된 쉼을 주시는 예수님, 모든 슬픔과 눈물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인생을 만나시기 위해 친히 고난의 장소로 걸어오시며 모든 것들을 꾸짖어 물러가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굳건히 믿음으로 이 모든 고난에 무너지지 말고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3. 하나님의 나라에는 바다와 같은 두려움이 대상이 없습니다.

- 하나님은 음에게 깊은 물 밑으로 다녀 보았느냐고 질문하시면서 사망의 문을 보았느냐고 묻습니다. 본문 16~17절입니다.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은 죽은 자들이 거주하는 음부의 문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깊은 물 밑에 있다고 묘사됩니다(시9:13). 당시 사람들은 지옥의 문이 바다 깊은 곳에 있다고 믿었습니다(계20:13). 그래서 고대인들에게 바다는 죽음을 상징하는 두려운 대상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임할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다고 전합니다(계21:1). 이는 구원이 완성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생을 상징적으로 보여 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곳은 더 이상 사망과 음부의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행복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비단 우리가 영원히 거할 하늘의 영원한 천국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상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땅에 천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과 낙심됨이 있고, 인간의 한계를 통하여 고난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도 함께 함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이루고, 우리를 도우시며, 반드시 견디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 감사하며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닷물이 육지를 침범하여 덮어 버리는 재앙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2004년 12월 26일에 일어난 인도양 쓰나미는 23만명이 사망하였고, 2011년 3월에 있었던 일본의 쓰나미로 인한 원전의 문제는 지금까지도 많은 나라에 어려움을 줍니다. 지구 온난화와 자연재해로 인해 이러한 두려움이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하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며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찬송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이 변함없는 우리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 한 주간도 더욱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 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나의 믿음과 가정, 교회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 찬 송 / 412(통469)장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 폐 회 / 주기도문